

少年非行의 動向과 家族病理와의 關係研究

A Study of Relation on the Trend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bnormal Family

송의여자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정 기 숙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Eui Women's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 Chung, Ki Sook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론 및 제언 |
| II. 소년비행의 최근 동향 | 참고문헌 |
| III. 가족의 병리와 소년비행과의 관계 | |

〈Abstract〉

In recent years, behavioral disorders of young people and juvenile delinquency tend to increase remarkably in number, and closed up high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problems in Korea. It goes without saying that parents generally play important roles in children's development of personality, and the home is mostly responsible for juvenile delinquency.

Therefore, first this paper describes a relation between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ts. Burt, Shideler, Neumayer, and Glueck maintain that broken family is a cause of delinquency, on the other hand, Healy and Sutherland assume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ir contentions.

Second, Breckinridge, Merrill, and Glueck maintain that poor family is a cause of delinquency, while Sullenger, Neumayer, and Dirksen make a considerable point which poverty has no direct connection with delinquency.

Third, abnormal family relationships, namely, discord family, abnormal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mmoral family exert a bad influence upon formation of personality,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preschool childhood.

These results give some empirical support to the theory that children's conduct

disorders and juvenile delinquency are caused by defective family relationships. It is necessary that a community has a supporting structure of children's wholesome development and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I. 문제의 제기

가정과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은 어린이의 생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과 발달면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 자녀, 형제가 서로 깊은 애정적 유대관계와, 서로 돕는 협동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집단이다.

Bronfenbrenner(1977)는 어린이의 발달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微小系社會로서 인간생활의 기반이라고 했지만, 특히 가족이란 어린이가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 더욱 큰 사회로 발전해 나가며 스스로의 인간형성을 달성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중요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경제생활은 높아졌으나 그와는 반대로 가족간의 연대감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의 대중화의 여파로 어린이 교육에 관한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여러 가지 지장과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개성과 특질, 능력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학력만을 강조하는 부모, 일방적으로 가치관을 강요하고 자기 현시적인 명령, 금지, 지시만을 하는 부모, 어린이의 행동에 불안을 느껴 과잉보호하는 부모, 반대로 체념하고 방임하는 부모 등 잘못된 부모 자녀관계에서 비사회화 내지 반사회적인 문제행동이 발달하여 오늘날 소년비행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근래 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의견상 명확하게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유아기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상의 과오가 자주 지적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연구는 아직도 미개척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 현실정이다.

다년간 소년비행문제를 연구한 石田幸平(1984)는 비행을 유발하는 가정의 특징으로, ①결혼 가정, ②다자 가정, ③ 빈곤 가정, ④ 부도덕 가정, ⑤ 범죄자 가정, ⑥ 정신 장애자 가정, ⑦ 자주 이사하는 가정, ⑧ 부모가 무지무교양한 가정, ⑨ 갈등 가정, ⑩ 부모가 애정이 희박한 가정, ⑪ 부모의 과잉 애정가정, ⑫ 부모의 감독·훈육 부족 가정, ⑬ 엄격한 가정, ⑭ 이웃으로부터 고립된 가정 등을 들고 있다.

서울 소년 감별소의 1991년도 자료에 의하면 12세 - 15세 까지의 소년층의 비행은 1987년이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출소년의 가출현황을 볼때 총 2,558명 중 가정 협오가 35.5%, 여자소년의 경우는 41.7%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때 비행의 발생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년비행을 유발하는 가정의 병리를 검토하여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부적응 행동을 치료할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1982-1991)의 소년비행의 동향을 고찰 하고 다음으로 비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정의 병리를 검토한 후, 끝으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발달을 이룰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설치해야 할 몇가지의 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소년비행의 최근 동향

1. 전체동향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2년도 소년범죄자는

99,382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3년 이래 1986년에 일시적인 소폭의 증가 현상을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1987년 이래 1986년에는 안정된 추세에 있다가 1989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4,787명 5.9% 증가하였으나 1990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982명 3.5%, 1991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0,033명 12.2%가 각각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여진다(표 II-1 참조).

그러나 14세 미만의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강도, 방화와 같은 소년강력범, 15세 미만의 소년 폭력범, 사기, 중상류층의 소년범죄, 고교학력 이상의 범죄자, 재범자, 학생범죄 등은 최근 5년 사이에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범죄백서, 1992).

〈표 II-1〉 소년의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 (1982 - 1991년)

區分 年度	少年		
	人員	少年比	人口比
1982	99,382 (100)	10.1	140.8
1983	93,365 (94)	18.0	131.7
1984	90,569 (91)	17.2	126.7
1985	88,298 (89)	16.8	122.8
1986	89,206 (90)	16.7	123.7
1987	80,025 (81)	14.9	111.4
1988	80,641 (81)	16.1	113.5
1989	85,428 (86)	18.1	122.5
1990	82,446 (83)	14.8	115.5
1991	72,413 (73)	12.4	108.9

註 : 韓國統計年鑑

2. 소년비행의 저연령화

서울 소년 감별소의 비행소년감별결과분석을 보면 16세 이상 20세 미만에서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5세 미만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2세 - 13세의 경우는 87년 - 91년 사이에 무려 2.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비행의 저연령화가 뚜렷하다(표 II-2 참조). 선진국에서도 Low-teen 화라고 하여 현대 소년범죄의 한 특징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金箕斗, 1983). 일본에서도 1988년의 경시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형법범 중 14세-15세까지의 저연령층의 소년이 약 반수에 이르는 49.7%를 나타내고 있다(安森幹彦, 1989).

〈표 II-2〉 감별소년의 연령별 개황

성 별	년령 인원 년도	計	12-13	14-15	16-17	18-19
남 자	87 년 도 N	4,521	137	904	2,143	1,324
	%	100	3.0	20.0	47.4	29.3
	88 년 도 N	4,301	191	1,082	2,081	947
	%	100	4.4	25.2	48.4	22
	89 년 도 N	4,833	151	1,036	2,125	1,521
%	100	3.1	21.4	44.0	31.5	
여 자	90 년 도 N	4,860	148	864	2,037	1,810
	%	100	3.0	17.7	41.9	37.4
	91 년 도 N	4,891	367	1,197	2,124	1,180
	%	100	7.5	24.5	43.4	24.1
	87 년 도 N	174	15	62	68	29
%	100	8.6	35.6	39.0	16.8	
여 자	88 년 도 N	162	15	74	50	23
	%	100	9.3	45.6	30.9	14.2
	89 년 도 N	176	4	58	83	31
	%	100	2.3	33.0	47.2	17.6
	90 년 도 N	207	24	61	59	63
%	100	11.6	29.5	28.5	30.4	
여 자	91 년 도 N	249	31	102	93	23
	%	100	12.5	40.9	37.4	9.2

3. 소년비행의 포악화

소년비행의 저연령화에 이어 포악화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강력범이 1991년에 성인을 포함한 전체 강력범죄자수는 11,796명인데 이중 소년범이 3,568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어 타범죄에 비하여 소년범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강도의 경우는 47.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포악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범죄백서,

〈표 II-3〉 소년강력범 인원 및 인구비 (1982 - 1991년)

年度	計		殺人	強盜	強姦	放火
	人員	人口比				
1982	5,663	80.2	93	1,875	3,642	53
1983	5,358	75.6	103	1,838	3,360	57
1984	5,482	76.7	79	2,010	3,342	51
1985	5,689	79.1	88	2,287	3,266	48
1986	5,178	71.8	86	2,314	2,722	56
1987	4,195	58.4	122	1,973	2,073	37
1988	4,771	67.2	138	2,529	2,036	68
1989	5,588	80.9	109	3,000	2,427	52
1990	6,261	87.7	160	3,334	2,675	92
1991	3,568	53.7	93	2,238	1,165	72

註 :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0명 당 범죄자수를 말함.

1992).

4. 학생범죄의 증가

학생범죄는 최근 10년간(1982-1991) 33.1%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절도범과 폭력범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강력범은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범죄백서, 1992). 특히, 학생범죄 중에서 고교학력자의 범죄가 10년 사이에 1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입시위주의 교육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범죄백서, 1992).

5. 공동비행화

소년비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2인 이상 공동비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소년 감별소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 - 1991년 까지 공동비행의 유무분석 결과는 공동비행이 평균 75%를 상회하고 있다. 여자 비행소년의 경우 4명 - 5명의 공동비행의 수가 87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년비행의 공동화가 뚜렷하다.

6. 중상류층의 소년비행의 증가

1979년도 소년범죄의 대부분은 생활정도가 낮은 하류층으로 전체 소년비행의 90.6%였던 것이, 소폭이지만 해마다 감소 현상을 보여 1991년에는 8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류층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1987년에 10.8%에서 1991년에는 17.2%로 높아졌으며 상류층은 0.5%에서 1.1%로 높아졌다. 아직도 경제적인 빈곤층의 소년 비행이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상류층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범죄백서, 1992). 이상으로 최근의 소년비행의 대체적인 동향을 고찰하였다.

Ⅲ. 가족의 병리와 소년비행과의 관계

소년비행의 소질적인 원인을 강조하는 주장, 그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주장, 그리고, 이 양자를 똑같이 중요시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 모두가 소년비행의 원인이 대부분 가족 및 가정의 병리에 있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영유아기 부터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정 하는 바다.

Hurlock(1972)은 인간의 성격의 기초부분은 5세 정도에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에 원만한 모자관계를 갖게 된다면 어린이의 정서는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相部和男(1989)는 38년간 1만여명의 비행소년의 개인상담,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한 결과 유아기에 부모의 익애적,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바로 비행의 온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總理部靑少年 對策本部가 1983년에 세계 11개국 청소년(18세 - 25세) 각 1,000명에게 「청소년이 범죄를 범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라고 답한것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1개국 중 6개국이나 된다.¹⁾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은 1909년 어린이를 위한 백악관회의 에서 「가정

〈표 II-4〉 학생범죄자의 유형별 동향 (1982년 - 1991년)

年度	計		暴力犯		竊盜犯		強力犯		其他	
	人員	人口比	人員	人口比	人員	人口比	人員	人口比	人員	人口比
1982	42,414 (100)	76.1	21,169 (49.9)	38.0	14,442 (34.1)	25.9	528 (1.2)	0.9	6,275 (14.8)	11.3
1983	43,338 (100)	75.0	19,959 (46.1)	34.5	15,213 (35.1)	26.3	487 (1.1)	0.8	7,679 (17.7)	13.3
1984	42,038 (100)	69.2	20,270 (48.2)	33.4	13,675 (32.5)	22.5	1,950 (4.6)	3.2	6,143 (14.6)	10.1
1985	41,732 (100)	67.0	20,466 (49.0)	32.9	12,582 (30.1)	20.2	1,963 (4.7)	3.2	6,721 (16.1)	10.8
1986	44,508 (100)	70.9	19,685 (44.2)	31.3	13,535 (30.4)	21.6	1,788 (4.1)	2.8	9,500 (21.3)	15.1
1987	39,931 (100)	63.6	17,444 (43.7)	27.8	12,244 (30.7)	19.5	1,364 (3.4)	2.2	8,879 (22.2)	14.1
1988	42,011 (100)	67.4	18,687 (44.5)	29.9	11,091 (26.4)	17.8	1,592 (3.8)	2.6	10,641 (25.3)	17.1
1989	52,404 (100)	85.8	23,868 (45.5)	39.1	12,096 (23.1)	19.8	2,106 (4.0)	3.4	14,334 (27.4)	23.5
1990	55,023 (100)	90.9	23,686 (43.0)	39.1	12,275 (22.3)	20.3	2,504 (4.6)	4.1	16,558 (30.1)	27.4
1991	56,468 (100)	90.7	21,264 (37.7)	34.2	13,396 (23.7)	21.5	1,336 (2.4)	4.0	20,472 (36.2)	32.9

은 문명의 소산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아동은 긴급하거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생활에서 이탈시켜서는 않된다.」고 선언한 이래 오늘날에도 이 선언은 세계 각국이 아동복지를 실현시켜 나가는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현대 가족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소년비행도 이와 같은 가족의 병리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소 한도의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의 인격은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이탈행동을 낳게 된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조건은 부모의 존재, 가정경제의 안정, 원만한 가족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중의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Ⅲ에서는 소년비행의 원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과, 가정의 병리적인 원인을 검토하여 소년비행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11개국은 일본,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필리핀, 한국, 브라질 등인데, 한국은 비행원인에서 1위가 친구, 2위가 본인, 3위가 부모로 나타났다. 부모가 비행의 원인으로 1위를 차지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브라질 등 6개국이며, 2위는 일본,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등 3개국이고 3위는 서독, 한국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5〉 공동비행의 유무

성 별	有無別 年度		計	有	無
	年度	人員			
남 자	87년도	N	4,521	3,608	913
		%	100	79.8	20.2
	88년도	N	4,301	3,234	1,067
		%	100	75.2	24.8
	89년도	N	3,850	2,686	982
		%	100	74.5	25.5
	90년도	N	3,532	2,566	966
		%	100	72.7	27.3
	91년도	N	4,080	3,007	1,073
		%	100	73.7	26.3
여 자	87년도	N	174	103	71
		%	100	59.4	40.6
	88년도	N	162	91	71
		%	100	56.2	43.8
	89년도	N	121	80	41
		%	100	66.1	33.9
	90년도	N	150	113	39
		%	100	75.3	24.7
	91년도	N	204	138	66
		%	100	67.6	32.4

〈표 II-6〉 소년범죄자 생활정도별 구성비
(1987년 - 1991년)

生活程度 年度	計	下流	中流	上流
1987	97,849 (100)	86,788 (88.7)	10,615 (10.8)	446 (0.5)
1988	104,052 (100)	90,607 (87.1)	12,883 (12.4)	562 (0.5)
1989	108,015 (100)	92,721 (85.8)	14,714 (13.6)	580 (0.6)
1990	105,567 (100)	87,315 (92.7)	17,668 (16.7)	584 (0.6)
1991	102,537 (100)	83,801 (81.7)	17,661 (17.2)	1,075 (1.1)

1. 결혼가정과 소년비행과의 관계

가족이 구조면에서나 기능면에서 결함이 있다면 가정 생활은 불안정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행의 원인으로서는 오래전 부터 많은 학자들은 결혼가정이 소년비행과 가장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결혼가정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적극설은 Burt (1938)의 주장인데 비행소년에 있어서 결혼가정에서의 출현율은 일반소년보다 2.2배나 된다고 하면서 비행화에 있어서 결혼가정의 의미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Shideler(1958)의 연구에서는 결혼가정에서의 비행소년의 출현율이 40% - 70%에 이르고 있으며 비행소년에 있어서 결혼가정의 고출현율을 지적하였다. Neumayer(1961)도 결혼가정은 비행소년에 있어서 일반소년의 3 - 4배의 비율로 출현한다고하여 비행화에 미치는 결혼가정의 의미를 중시하였다. Shaw와 Mckay(1963)는 1,675명의 비행소년중 43%가 결혼가정의 소년이었으나, 일반소년의 경우는 36%였다고 하면서 비행소년에 있어서 결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주목하였다. 청소년 연구로 유명한 Glueck (1950) 부처도 비행소년중 결혼가정 출신은 49.8%였으나 일반소년에서는 28.8%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에 반하여 결혼가정을 비행의 원인으로 보는데는 비판적인 사람도 있다. Healy(1926)는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시카고와 보스턴의 비행소년 2,000명중 약 반수는 결혼가정의 소년이었다고 하면서 결혼가정의 출현율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것이 그대로 비행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비행화에는 결혼가정 보다 유아기에 가정에서 일어난 정서장애가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Sutherland(1947)도 결혼 원인설에는 비판적이었다. 이제까지 여러 보고에서 비행소년의 30% - 60%가 결혼가정 출신으로 평균 40% 이상으로 볼 수 있으나, 결혼가정은 종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비행요인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결혼의 내용, 시기등에 의해 결혼이 어린이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uttie(1977)는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며 이시기에 충분한 모자관계를 갖지 못할 경우 격리 불안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Bowlby(1972)는 유아기에 모친과의 격리체험은 후일 정서 반응의 감퇴를 가져오며 이와 같은 균형을 잃은 인격을 모성박탈(maternal deprivation)에 의한 애정결핍형의 인격(affectionless personality)이라고 하였다. 비행소년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정서불안 성격은 그들이 유아기에 충분한 모자관계를 갖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행소년이 유아기에 모의 결손을 겪은 어린이로 부터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서울 소년 감별소의 1991년도 자료에 의하면 결손이 있는 가정(부모중 장기 부재 포함)이 44.9%이고 이 중에서 부망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망이 14.3%, 부모망이 8.6%, 이혼이 20.2%, 별거가 16.1%, 장기 부재가 7.1%로 나타나고 있다. 87년 이후 91년까지 결손율은 40% - 47%에 걸치고 있고, 평균 43.5%인데 주목해야 할것은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가 부모가 다 결손일때 보다, 무려 2배 이상의 비행을 나타내고 있어 부모의 불화, 갈등 등 가족관계에 이상이 있을때, 보다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손시의 연령구분에서 나타난 비율은 0세 - 6세 미만이 37.9%, 7 - 12세가 41.5%, 13세 이상이 20.6%로 결손시의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르다. 여기에서 12세 미만의 수를 합하면 79.4%로 어릴수록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loch(1956)는 결손 그 자체가 비행의 원인이 아니고 유해한 조건 즉, 가족의 기능 부전과 연결될 때 비행발생의 배경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이의 연령이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대되면서 어린이 보육의 기능이 타인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모가 다 있어도 가족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 가정을 준결손가정(quasi-broken home)이라고 하였다(Neumayer, 1961). 결손이 없는 가정에서

의 비행소년 출현율(서울 소년감별소, 1991)도 55.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무모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결손가정의 문제를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가족의 구조상의 결합이 곧바로 비행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이 가족기능을 현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부전이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소외된 어린이가 비행화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빈곤가정과 소년비행과의 관계

가정경제가 극도로 불안하면 가족원의 물리적, 심리적,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행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의 빈곤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19세기 이래 전통적 범죄학설에 있어서는 경제적 빈곤이야말로 범죄의 모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Breckinridge와 Abbott(1912)는 시카고 소년법원에서 취급한 비행소년의 76%, 비행소녀의 89%가 빈곤 내지는 극빈이었다고 하여 빈곤을 비행원인으로 중시하였다. Burt(1938)도 그가 연구한 비행소년의 50% 이상이 빈곤 또는 극빈 가정이었다고 말하고 비행의 빈곤요인을 강조하였다. Merril(1950)도 빈곤은 모든 비행소년군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빈곤은 비행의 환경적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Glueck 부처(1950)는 비행소년과 일반소년과의 비교연구에서 비행 소년의 경제적 조건이 나쁘다는 것을 보고하고 비행소년가정이 일반소년가정보다 훨씬 많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부모는 미숙련 노동자가 많았고 가족일인당 수입이 낮은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제적 빈곤을 비행요인으로 보는데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도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는 Healy(1936)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비행소년의 22%는 빈곤 가정의 출신이었고 5%는 극빈 가정 출신이었으나 경제적 빈곤이 원인이 되어서 비행화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겨우 0.5%에 지나지 않

았으며 빈곤에서 비행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장애 야말로 비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Neumayer(1961)도 비행소년의 대부분이 빈곤가정의 소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모두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빈곤이라든가 부유하다든가 하는 경제적 조건이 비행의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빈곤을 비행 요인으로 보는데 있어서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이 양자를 다 비판하면서 절충적인 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Tappan(1949)이다. 빈곤을 어린이의 성격, 가치관, 법에 대한 태도등을 형성하는 훈육이나 가정내에서의 경험으로 보고 비행의 간접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Dirksen(1948)도 빈곤과 비행과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빈곤은 가족해체의 요인이고 비행은 가족해체의 한 현상이므로 양자의 관계도 간접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 1991년 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1987년의 비행소년의 경제적 배경은 상류층이 0.5%, 중류층이 10.8%, 하류층은 무려 88.7%에 이르렀다. 이후 매년 중류층의 소년 비행은 2% - 3%씩 상승하여 1991년에서 17.2%를 차지하게 되고, 상류층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하류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범죄백서, 1992). 이것은 그동안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81.7%라고 하는 절대 다수의 비행소년이 빈곤층 출신이라고 보면 빈곤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빈곤 때문에 자녀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때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가족관계의 이상과 소년비행과의 관계

앞서 소년비행의 가정적 배경으로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과 경제적 빈곤에 대해서 고찰했는데 이와 같은 결손과 빈곤이 직접 비행화에 연결된다기 보다는 중요한 기능인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행의 배경이 된다는 주장이 많았

다. 최근 5년간(87년-91년)의 통계를 보면 80% 이상이 부모가 다 건재하고 있는 가정의 출신이었으며 소년비행의 추세가 점차 경제적으로 중류이상의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백서

〈표 Ⅲ-1〉 소년범죄자 보호자별 현황 (1987년 - 1991년)

年度	保護者				
	計	實父母	偏父	偏母	無父母
1987	83,613 (100)	67,645 (80.9)	3,709 (4.4)	9,611 (11.5)	2,648 (3.2)
1988	84,209 (100)	66,854 (79.4)	3,727 (4.4)	10,511 (12.5)	3,077 (3.7)
1989	99,189 (100)	80,330 (80.9)	3,982 (4.0)	10,685 (10.8)	4,192 (4.3)
1990	98,636 (100)	77,989 (79.1)	4,241 (4.3)	11,331 (11.5)	5,075 (5.1)
1991	95,231 (100)	79,548 (83.5)	4,065 (4.3)	8,907 (9.4)	2,711 (2.8)

註 : 1. 偏父는 實父繼母, 實父無母를, 偏母는 實母繼父, 實母無父를
無父母는 繼父母, 繼父無母, 繼母無父, 無父母를 말함.

2. 既婚者는 제외

1991).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도 건재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가정의 소년들이 왜 비행화 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을 이상이 있는 가족관계에서 분류해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갈등가정이고, 다음은 부모자녀 관계의 이상이며 마지막으로 부모덕 가정으로 나눌수 있다. 이 세가지를 차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갈등가정

비행의 원인이 되는 가정내의 갈등에 대해서 桶口幸吉(1973)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 구세대와 신세대의 사고의 차이, 봉건적 사고와 민주적 사고, 가족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둘째, 가족간 특히 부모 사이에 교양, 습성, 인생관, 희망, 성격등에 차이가

있어서 조화를 이룰수 없을 경우, 셋째, 고부간의 가정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주도권을 싸고 다툼이 있을 경우, 넷째,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구성이 붕괴되어 한가정내에 혈연관계가 아닌 동거자가 있어서 가족 구성이 분열되고 정리되지 않을경우, 다섯째, 부모 또는 어느 한쪽이나 쌍방이 혼인외의 성적관계를 따로 가질 경우, 여섯째, 가족중에 누군가가 정신적,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경우등이 어린이의 위치와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山口透(1984)도 세대간의 문화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변동이 심하고 문화가 다양하게 되면 구세대와 신세대간에 인생관의 차이, 사회변동에 따르는 문화적응력의 차이로 일상생활 중에서 갈등이 심하게 된다. 이와같이 세대간의 문화 갈등이 심화될 때 청소년은 가정에 안주하기가 어렵고 가정밖에서 안주의 장을 구하게 되어 비행집단에 가입하거나 구세대에게 반항으로 고의적인 비행을 저질러기도 한다. 또한 가족내에 갈등이 있는 경우 가족원의 정서가 안정되지 않고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공격적 행동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부모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Grogan 부처(1971)는 가족간의 갈등과 긴장이 자녀의 인격형성 및 사회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갈등과 긴장감으로 가정생활을 계속할 때 어린이는 적절하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법이라는 가치기준과 행동에 관한 규칙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가치관을 가족에게서 보다는 동료들로부터 추구하게 되어 반사회적인 비행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의 가치기준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Neumayer(1961)는 비행 원인으로서 결손가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부모의 결손보다도 심리적인 가정의 붕괴, 즉 부모의 불화나 갈등을 둘러싼 긴장상태가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갈등이 자녀의 지적발달에도 장애가 된다는 임상례가 있다. 즉, 부부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이혼으로까지 발전했던 시기에 아동의 지능검

사를 실시한 결과 이제까지 좋았던 지능지수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가 다음해에 부부관계가 다시 순조롭게 되었을때 실시한 지능검사에서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高橋艶子, 1972). 부모의 갈등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다시 자녀들 상호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하여 가족이 분열하고 집단으로서의 통합성이 결여된다. Glueck 부처(1950)가 가족의 결합성을 증시하고 이것을 비행예측의 사회적인 다섯가지 인자중의 하나로 본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1950년에 소년비행조기예측법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예측표도 초기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여러 예측표 연구가들이 행한 신뢰성 검증연구(Validation Study)에 의하여 90% 내외의 예측적중율이 실증되었다.

山口透(1984)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부모의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다음 8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자녀의 정서적 안정 파괴. 둘째, 자녀에게 불안감. 셋째, 자녀의 인격형성 저해. 넷째, 자녀로부터 동일화의 모델 박탈. 다섯째, 자녀의 사회화 저해. 여섯째, 부모자녀간, 형제간의 갈등 야기. 일곱째, 자녀를 가정으로부터 소외. 여덟째, 이혼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② 부모자녀관계의 이상

어린이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주로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행동양식을 배우고, 규칙에 따라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힘을 기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양육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화를 저해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Burt(1956)는 비행소년과 일반소년을 비교해 볼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정의 훈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불충분한 훈육이 비행소년에서는 일반소년의 무려 6.9배에 이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훈육을 약화 시키는 부모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결함, 부모의 결손, 또한 부재로 인한 훈육의 결여, 감독의 불일치, 엄격한 훈육

등은 가정의 빈곤 보다도 4배나 중요한 비행의 요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Glueck(1950)는 비행소년과 일반소년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비행화의 다섯가지 사회적 인자, 즉 ① 아버지의 소년에 대한 훈육, ② 어머니의 소년에 대한 감독, ③ 아버지의 소년에 대한 애정, ④ 어머니의 소년에 대한 애정, ⑤ 가족의 결합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머니에 의한 감독을 중시하고 어머니의 감독이 적절 하지 못한 경우가 비행소년의 63.8%를 차지한데 비해서 일반소년에서는 13%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방임과 감독의 소홀이야말로 환경의 부적응과 비행의 주요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Trojanowicz(1973)는 가정에 있어서 유아기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유아기의 경험은 그 어린이의 장래의 행동양식, 태도, 가치관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며, 가정은 어린이 자신의 정서나 동인을 어떻게 통제하고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학습하는 장이다. 가족이 어린이의 사회적 적응을 원조해 주지 않으면 심리적 지주를 잃고 사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관을 잃게되며 따라서 어린이의 부모에 대한 적의나 거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의 불일치는 모든 소년비행화에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Bloch(1956)도 유아기에 있어서의 인격형성을 중시하고 2세 - 6세 사이에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적응기술을 습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6세까지의 체험한 인간관계의 질이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유아기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5년간(87년-91년) 서울 소년감별소에서 보호소년들의 부모의 훈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매년 방임하는 훈육태도가 가장 높은 비행율로 나타났으며 50% 내외이다. 여기에서 방임적인 태도와 비행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 III-2 참조) 1991년 통계에 의하면 다음으로 높은것이 익애로 14.9%,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10.7%, 엄격이 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소년의 경우는 엄격한 훈육태도가 16.8%로 상당히 높으며 훈육태도가 적절했다고 하는 경우는 5.9%에 불

과했다. 비행소년의 부모중에는 방임, 익애, 엄격한 훈육태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 부도덕 가정

가족중에 범죄자, 비행자, 알콜중독자, 품행 불량자, 성적방탕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부도덕가족이라고 하며 비행소년의 가족에는 부도덕 가족이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 藤田弘人(1992)은 가족중에서 비행의 유형을 습득하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첫째, 극단적인 사례로서는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직접 가르친 경우, 둘째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유사한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비행유형을 습득하는 경우, 셋째, 반사회적 행동의 경향이 있는 가족의 행동 유형을 습득하는 경우, 그 가족을 범죄의 전염매체로 보았다. Shaw(1956)는 범죄자 가정의 분위기가 어린이의 부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런던의 비행소년에 대해서 조산한 Burt도 범죄자 가정의 소년의 수는 일반가정의 비행소년 보다 5배의 높은 발생율을 보고하면서 범죄자 가정의 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였다. 2,000명의 비행소년을 연구한 Hirsch(1961)는 그들의 부모 또는 한쪽 부모에게서 다음과 같은 부도덕자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정서불안정 56.4%, 알콜중독 41.5%, 성적일탈 25.3%, 경제적 피보호자 15.5%, 전과자 12.7%, 정신박약 11.0% 정신병질자 8.4%, 매독환자 7.8%, 정신병자 3.9%, 전간환자 1.0% 등으로 비행소년의 부모로서 정상적인 경우는 19.7%에 지나지 않았다. Glueck(1950)도 비행 다발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알콜중독, 전과경력, 품행불량으로 나타난 부모는 일반소년군에서는 54.0% 이었으나, 비행소년군에서는 90.0%의 고율을 나타냈다고 하여, 비행소년가족의 부도덕성을 주장하였다.

서울 소년감별소의 자료에 의하면(1991년 통계) 감별소년중 알콜중독자 9.1%, 부도덕자 1.2%, 전과자 0.8%등 10.5%가 부도덕성이 농후한 가정에서 나타났으며, 비행소년의 부모로 문제가 없는 경우는 11%(남·녀 평균치)에 불과했다.

올바른 사랑을 받아야할 자녀가 부모가 부도덕할

〈표 III-2〉 부모의 훈육태도

성 별	態度 人員 年度	計	適 切	放 任	拒 否	嚴 格	溺 愛	一 貫 性 無	父 母 不 一 致	其 他
남 자	87年度 N	4,330	268	2,174	156	710	377	450	87	108
	%	100	6.2	50.2	3.6	16.4	8.7	10.4	2.0	2.5
	88年度 N	4,003	350	1,881	132	268	400	480	260	232
	%	100	8.7	47.0	3.3	6.7	10.0	12.0	6.5	5.8
	89年度 N	3,850	545	2,109	84	376	176	161	200	199
%	100	14.2	54.8	2.2	9.8	4.6	4.2	5.2	5.2	
여 자	90年度 N	3,532	127	1,734	80	384	170	733	188	116
	%	100	3.6	49.1	2.3	10.9	4.8	20.8	5.3	3.2
	91年度 N	3,992	275	1,764	188	412	584	420	220	59
	%	100	7.0	45.0	4.8	10.5	14.9	10.7	5.6	1.5
	87年度 N	164	14	87	2	20	12	17	8	4
%	100	8.4	53.2	1.4	12.3	7.4	10.4	5.1	1.8	
여 자	88年度 N	150	7	88	11	11	6	6	9	12
	%	100	4.7	58.7	7.3	7.3	4.0	4.0	6.0	8.0
	89年度 N	121	22	70	3	11	4	7	3	1
	%	100	18.2	57.9	20.5	9.1	3.3	5.8	2.5	0.8
	90年度 N	150	7	77	9	20	5	21	5	6
%	100	4.7	51.3	6.0	13.4	3.3	14.0	3.3	4.0	
여 자	91年度 N	197	12	88	10	33	7	25	20	2
	%	100	5.9	44.6	5.0	16.8	3.9	12.9	9.9	1.0

경우, 부모와 자녀의 애정관계는 어린이의 비행화를 촉진한다. 부모의 그릇된 애정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발달시키지 못할뿐만 아니라 부모의 반사회적 행위를 모방하여 비도덕적 행동양식이 유아기부터 내면화 되고 만다. 또한 부도덕한 부모를 동일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는 가족의 기준에 반항할뿐만 아니라, 학교의 권위와 사회에도 반역하게 된다. 어린이가 이와같은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것 만큼 비행한 일은 없다.

相部和男(1989)는 「불량소년은 한사람도 없다. 모두 불행소년인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악질적인 인적 물적환경은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소년비행이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비행의 동향과 가정의 병리를 고찰하였다.

최근 10년간 비행소년은 전체 수치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14세 미만의 소년강력범, 중상류층의 소년범죄, 고학력자의 범죄는 오히려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년 비행의 원인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의 병리, 즉 결손가정, 빈곤가정, 부모자녀관계의 이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 때부터 바람직한 가정환경과 올바른 가정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발달을 보장받지 못한데 있다.

소년비행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표 III-3) 가정의 문제점

성별	問題點 人員 年度	計	父母 葛藤	缺損 離散	極貧	犯罪 者有	酒酌 者有	自殺 者有	精神 障礙者	不道德 者有	本人 疏外	家族 不和	隣近에 서孤立	其他	問題 없음
남자	87年 N	4,521	678	1,044	461	32	276	9	13	9	470	615	59	5	850
	%	100	15	23.1	10.2	0.7	6.1	0.2	0.3	0.2	10.4	13.6	1.3	0.1	18.8
	88年 N	4,301	486	705	409	65	207	13	34	13	1,011	404	108	116	730
	%	100	11.3	16.4	9.5	1.5	4.8	0.3	0.8	0.3	23.5	9.9	2.5	2.7	17.0
	89年 N	3,850	138	1,511	790	15	54	15	15	16	997	222	69	8	
%	100	3.6	39.2	20.5	4.0	1.4	0.4	0.4	0.4	25.9	5.8	1.8	0.2		
여자	90年 N	3,532	161	1,243	590	27	286	9	36	72	322	169	63	98	456
	%	100	4.6	35.2	16.7	0.8	8.1	0.3	1.0	2.0	9.1	4.8	1.8	2.8	12.8
	91年 N	4,080	204	1,465	734	33	371	8	24	49	298	136	106	118	534
	%	100	4.6	35.2	16.7	0.8	9.1	0.2	0.6	1.2	7.3	3.3	2.6	2.9	13.1
	87年 N	174	19	48	23		6			5	17	21	7	3	25
%	100	11.2	27.5	13.2		3.2			2.8	9.8	12.1	4.2	1.4	14.6	
남자	88年 N	162	20	43	17	3	14		4	2	20	23		6	10
	%	100	12.3	26.5	10.5	1.9	8.7		2.5	1.2	12.3	14.2		3.7	6.2
	89年 N	121	1	42	9	0	5	1		2	46	9	4	2	
	%	100	0.8	34.7	7.4		4.1	0.8		1.7	38.0	7.4	3.3	1.7	
	90年 N	150	13	59	16	4	10	1	1	2	16	10	2	3	13
%	100	8.7	39.3	10.7	2.7	6.7	0.7	0.7	1.3	10.7	6.7	1.3	2.0	8.5	
남자	91年 N	204	16	78	26	3	11		3	7	20	13	5	3	19
	%	100	7.8	38.2	12.7	1.5	5.4		1.5	3.4	9.8	6.4	2.5	1.5	9.3

문제이다. 비행대책은 비행의 뒷처리로서 교정이라든가 치료내지 지도를 중점으로 하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도 모든 어린이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받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어린이의 전체적인 복지를 향상시켜서 비행소년의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모든 어린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를 익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을 키워 나갈수 있는 시설,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 즉 부모들이 가정생활과 아동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재료, 건전하고 풍부한 아동문화제를 확보해 주며, 어린이의 성장에 나쁜 불량

문화제는 축출할 수 있는 조직을 최소한도 구·읍·면 단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도 한 지역사회가 이 정도의 조직과 기구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부모학교, 어머니회, PTA,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걱정 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행복을 확보해 주는데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이며, 동시에 비행의 예방 및 대책의 중요한 기초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金箕斗, 韓國犯罪少年研究, 서울 博英社, 1983. P. 48.

- 2) 犯罪白書, 1991, 1992.
- 3) 서울 少年鑑別所, 非行少年의 鑑別, 1990, 1991.
- 4) 尹德重, 犯罪와 少年非行學, 서울, 博英社, 1988.
- 5) 李相賢, 犯罪心理學, 서울 博英社, 1992.
- 6) 李潤鎬, 韓國青少年非行論, 서울, 法文社, 1989.
- 7) 張仁協, 兒童福祉研究, 서울 壽文社, 1981. P. 197.
- 8) 韓國 카운슬링 研究所, 非行青少年의 理解와 指導, 서울 星苑社, 1992.
- 9) 相部和男, 非行의 火種は 3歲に始まり, PHP 文庫, 1989.
- 10) ———, 非行少年의 幼兒期를 探る, 犯罪と非行, NO. 79, 1989.
- 11) ———, 問題兒は問題の親がつくる, PHP 文庫, 1990.
- 12) 石田幸平: 武井鎮次編, 犯罪心理學, 東海大學出版社, 1984, P. 50.
- 13) 大淵憲一外, 兒童の行動問題と親子關係, 家族心理學年報 4, 東京, 金子書房, 1986.
- 14) 桶口幸吉, 子どもの非行と兩親の役割(新家政教育讀本) 金子書房, 1973, pp. 334-335.
- 15) ———, 少年犯罪, 東京. 紀伊國屋書店, 1963. pp. 98-100.
- 16) 新田健一, 母性倫理の衰退と少年非行, 犯罪と非行, NO. 86, 1990.
- 17) ———, 少年非行の變貌と行方, 家族心理學年報 7, 東京, 金子書房, 1989.
- 18) 麥島文夫, 非行の原因, 東京大學出版會, 1992, PP. 61-62.
- 19) 高橋雅春, 非行少年の類型, 東京, 文教書院, 1971.
- 20) 高橋艶子, 家庭臨床心理學, 東京 金子書房, 1972, P. 15.
- 21) 山口透, 少年非行學, 東京, 有信堂, 1984, PP. 118-119, 124-126.
- 22) 吉岡征雄, 非行.問題行動の防止と親の役割, 犯罪と非行, NO. 79, 1989.
- 23) 藤田弘人, 犯罪.非行研究におけり 家族の問題, 犯罪と非行, NO. 93, 1992.
- 24) 安森幹彦, 少年院處遇と教育の成果, 犯罪と非行, NO. 81, 1989, P. 60.
- 25)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 Press, 1979.
- 26) Burt, c., The Young Delinquents, 1938, pp. 91-92.
- 27)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 28) Glasser, P.H. & Glasser, L.N., Families in Crisis, Harper & Row, 1970.
- 29) Glick, I.D. & D.R. Kessler, Marital and Family Therapy, Grune & Stratton, New York, 1974.
- 30) Glidewell, J.C.,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Charles, C. Thomas, 1961.
- 31) Glueck, S. & E. Glueck, Unraveling Jvenile Delinquency. Harvard Univ., 1950, p. 88, 91, 110-113, 258-260.
- 32) Grogan, H. & R. Grogan, The Criminologic Famil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14, 1971, pp. 220-225.
- 33) Healy, W. & A.F. Bronner, Delinquents and Criminology, 1926, pp. 121-127.
- 34) Hirsch, T.,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1969.
- 35) Hurlock, E.,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72, pp. 565-568.
- 36) Jenkins. R.L., Classification of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69.
- 37) Lieberman, E.J., The Changing Family, the Family Therapy Network, vol. 11, NO 6, 1987.
- 38) Neill, A. S., 김인희 역, 문제의 가정, 양서원, 1990.
- 39) Neumayer, M.H., Juvenile Delinquency in Modern Society, 3rd ed. Van Nostrand co., 1961, p. 120.
- 40) Pedersen, F. A., The Father-Infant Relationship, Praeger Publishers, New York, 1980.
- 41) Sutherland, E.H. & D.R. Gressey, Principles of Criminology, 平野龍一 譯, 犯罪の 原因 有信堂, vol. 14, 1971, pp. 220-225.
- 42) Voiland, A., Family Casework Diagnosis, Columbia Univ. Press, 1962.